파워블레이드 은퇴 | ‘스타 퇴역마’들 어떻게 지내나

31억원 번 파워블레이드, 씨수말로 새출발

발목 골절 은퇴…제주팜 새보금자리
거세마 클린업조이는 관상마로 여생
은퇴 6년차 지금이순간 씨수말 활동

경마 팬의 사랑을 받으며 화려한 시절을 보낸 경주마들은 은퇴 후 어떻게 지낼까.

한국마사회 렛츠런파크 부경의 전설적인 경주마 파워블레이드(수, 6세, 한국)가 2일 은퇴했다. 데뷔 후 19전을 치르는 동안 11승을 거뒀고, 4위 밑으로 한 번도 내려간 적이 없어 연승률이 94.7%에 이르는 명마다. 2015년 2세마 최고 경주 브리더스컵을 우승했고, 3세 때는 트리플크라운 시리즈의 KRA컵 마일, 코리안더비, 농림축산식품부장관배를 모두 석권하며 한국 경마 최초의 통합 삼관마가 됐다. 4세 때 한국경마 최고 경주인 그랑프리까지 우승했다. 19번의 경주 출전으로 31억여 원의 상금을 획득했다.

지난해 7월부터 발목에 이상을 보이던 파워블레이드는 골절 판정을 받아 경주에 출전하기 힘들어 경주 은퇴를 결정했다. 앞으로 렛츠런팜 제주에서 씨수말로서 지내게 될 예정이다.

1월에는 경주마 클린업조이(거, 8세, 미국)가 렛츠런파크 서울에서 은퇴식을 치렀다. 클린업조이는 전성기인 5~6세 시즌에 장거리 대상경주 4개를 휩쓸었다. 특히 2016년 그랑프리에서 4년 만에 서울 경마 팬에게 우승을 안겨줬고 해당년도 ‘연도대표마’에도 선정됐다. 민형근 마주는 클린업조이의 이름으로 국내 최초의 시각장애 유아 특수학교인 서울효정학교 건립을 후원했다. 현재도 ‘클린업조이 교실’이 운영되고 있다.

오랜 기간 클린업조이와 호흡을 맞춘 함완식 기수는 클린업조이 은퇴식에서 특별히 기승하며 마지막 경주로 질주를 선보였다. 함완식 기수는 당시 “이렇게 좋은 말을 다시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여생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며 눈시울을 붉혔다. 현재 클린업조이는 한국마사회 제주 목장에서 여생을 보내고 있다. 거세마여서 씨수말로 활동하지는 못하지만, 관상마로서 활동하고 있다.

2013년 12월 은퇴한 지금이순간(수, 10세, 한국)도 제주도의 금악목장에서 지낸다. 지금이순간은 2014년부터 씨수말로 활동하고 있으며, 올해 5월에는 자마 ‘심장의 고동(수, 3세, 한국)’이 코리안더비에서 준우승이라는 성적을 거뒀다. 마주는 제주도에서 경주마 이름을 딴 카페를 운영하며 애마의 업적을 기념하고 있다. 카페에는 2012년 코리안더비 우승 등 활약상을 담은 자료를 전시하고 있다.

한국마사회 김낙순 회장은 “국민에게 사랑받는 경마로 거듭나기 위해 스타 경주마를 발굴하고 경마 관람의 흥미 요소를 더하는 등 다각도로 노력 중이다”라며 “이번에 은퇴한 파워블레이드가 씨수말로서도 대활약 할 것인지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정용운 기자 sadzoo@donga.com

한국마사회 렛츠런파크 부경의 전설적인 경주마 파워블레이드가 2일 은퇴했다. 19번 경주에 출전해 11승을 거두며 31억여 원의 상금을 획득한 파워블레이드는 앞으로 렛츠런팜 제주에서 씨수말로 활동한다. 오경환 기수와 파워블레이드. 사진제공 | 한국마사회

코리안더비 3위 ‘파워윈디’ 부경 자존심 지킬까

서울 9경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배
트리플 크라운 시리즈 마지막 관문

이번 주말 최강 국산 3세마가 가려진다. 16일 한국마사회(회장 김낙순) 렛츠런파크 서울 제9경주인 제19회 농림축산식품부장관배는 국산 3세마들의 나서는 트리플 크라운 시리즈의 마지막 관문이다. 총상금 6억 원을 놓고 시리즈 중 가장 긴 2000m 대결을 펼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배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 동안 부경 경주마가 계속 우승했다. 하지만 올해는 판도가 다르다. 서울 소속 경주마들이 KRA컵 마일과 코리안더비에서 승리하며 우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원더풀플라이(수, 3세, 한국, R60, 박대흥 조교사, 승률 60.0%, 복승률 80.0%)

코리안더비에서 전 구간을 1위로 통과하며 2위와 13마신(약 31.2m) 차의 압도적인 기량으로 우승했다. 데뷔 후 꾸준히 좋은 성적으로 5번의 출전 만에 벌써 5억6000만 원이 넘는 상금을 수득했다.

●[서울]글로벌축제(수, 3세, 한국, R73, 최상식 조교사, 승률 71.4%, 복승률 71.4%)

지난해 12월부터 4월까지 KRA컵 마일에서 4연승을 달성했다. 코리안더비에서 가장 많은 인기를 끌었으나 컨디션 난조로 5위에 머물렀다. 최근 실버울프와 함께 대상경주를 휩쓸고 있는 유승완 기수와 찰떡 호흡을 자랑한다.

●[서울]심장의고동(수, 3세, 한국, R46, 지용철 조교사, 승률 40.0%, 복승률 60.0%)

코리안더비 2위를 차지해 트리플크라운 시리즈 복병마로 떠올랐다. 부마 지금이순간은 3세마 시즌인 2012년 코리안더비와 농림수산식품부장관배를 우승한 경주마다.

●[부경]파워윈디(수, 3세, 한국, R52, 김길중 조교사, 승률 25.0%, 복승률 41.7%)

코리안더비 3위로 부경 경주마 중 유일하게 순위상금을 획득했다. 데뷔 후 최고 부담중량 57kg였지만 결승선까지 끈질기게 추입하며 놀라운 스태미나를 보여줬다.

●[부경]글리터(수, 3세, 한국, R59, 김영관 조교사, 승률 25.0%, 복승률 33.3%)

KRA컵 마일 4위로 트리플크라운 시리즈 승점을 획득했다.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배에서 우승한 월드선과 형제로 오피서의 자마다. 지난해 트리플크라운 시리즈 최우수마 엑톤블레이드를 이끌었던 김영관 조교사가 2연패에 도전한다. 정용운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배 고객행사 풍성

한국마사회 렛츠런파크 서울은 제19회 농림축산식품부장관배를 기념해 다양한 고객행사를 준비했다. 16일 오후 ‘미스트롯’의 김나희가 축하공연을 펼친다. 15일부터 2일간 렛츠런파크 서울 잔디광장, 솔밭정원, 중문 광장 등에서는 게임 이벤트가 열린다. 미니카 대결, 천하장사 만만세 이벤트, 달리는 말을 잡아라 등에 참여한 고객을 대상으로 경품을 증정한다.

7월 5일부터 장외발매소 이용료 인하

한국마사회는 7월 5일부터 장외발매소 이용료(입장료 포함)를 인하한다. 전국 30개 장외발매소를 프리미엄(2만 원), 스페셜(1만 원), 퍼블릭(5000원) 3개 등급 좌석으로 변경하고, 입장요금 포함한 시설 이용료를 하향 조정한다. 낡은 좌석과 시설을 개선해 쾌적한 관람 환경 조성한다.

말산업 국가자격 필기 269명 합격

한국마사회는 13일 제8회 말산업 관련 국가자격(3급) 필기시험 합격자 269명을 확정 발표했다. 520명이 응시해 합격률 52%를 기록했다. 합격자 중 남성이 154명으로 65.1%를 차지했으며, 10~20대 비율이 50.5%였다. 합격자 및 필기시험 면제자(제6~7회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27일까지 실기시험 응시를 접수한다. 필기시험 합격자 명단 확인 및 실기시험 응시접수는 호스피아 홈페이지(www.horsepia.com)에서 가능하다.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toto 스포츠토토

축구팬 79% “선두 전북, 꼴찌 인천쯤이야”

축구토토 승무패 21회차 중간집계
울산, 포항전 승리 예상 78% 달해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인 케이토토(www.ktoto.co.kr)가 오는 15일(토)과 16일(일)에 벌어지는 국내 프로축구(K리그) 9경기와 일본프로축구(J리그) 5경기 등 총 14경기를 대상으로 한 축구토토 승무패 21회차 인천-전북(7경기)전에서 국내 축구팬들의 79.00%가 원정 경기를 치르는 전북의 승리를 예상했다고 밝혔다. 이어 양팀의 무승부 예측은 12.63%로 나타났고, 홈팀 인천의 승리는 8.37%로 집계됐다.

현재 승점 33점(10승3무2패)으로 리그 1위에 올라있는 전북은 울산과 함께 리그 최상위권 대결을 이어가고 있지만, 반대로 인천은 승점 10점(2승4무9패)으로 최하위에 머물러 있다.

전북은 최근 제주, 경남, 강원, 상주를 차례로 격파하며 4연승을 챙겼다. 특히 마지막 경기였던 상주전에서는 이른 시간에 퇴장을 당한 김진수의 공백에도 불구하고 2-0의 완승을 거뒀다. 좋은 기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전북과 달리 부진에 빠져있는 인천은 최근 7경기에서 1승2무4패를 기록했다.

포항을 안방으로 불러들이는 울산은 78.33%로 이번 회차 중 전북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양팀의 무승부 예상과 포항의 승리 예상은 12.77%와 8.90%를 기록하는데 그쳤다. 울산은 현재 승점 33점(10승3무2패)으로 리그 2위를 기록하고 있다. 최근 7경기에서도 5승1무1패의 좋은 기록을 이어나가고 있는 울산은 주니오(6득점 3도움)와 김보경(5득점 4도움), 김태환(5도움) 등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좋은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는 울산이 이번 경기에서 안방의 이점까지 살린다면, 우세한 경기를 치를 가능성이 높은 경기다. 단, 이번 시즌 첫 맞대결에서 포항이 2-1로 승리를 거뒀던 것처럼 의외의 결과가 펼쳐질 가능성도 충분하기 때문에 철저한 전력분석이 요구된다.

이번 축구토토 승무패 21회차는 오는 6월 15일(토) 오후 5시50분에 발매를 마감하며, 경기가 모두 종료된 후에 결과가 공식 발표된다.

14일 두산-LG 경기 예측하고 치킨 먹자

공식 페이스북 ‘예측의 신’ 이벤트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인 ㈜케이토토가 공식 페이스북(www.facebook.com/sportstoto.toto.proto)을 통해 경기결과를 예상하는 ‘예측의 신(神)’ 이벤트를 진행한다.

대상경기는 오는 14일(금) 오후 6시30분에 서울 잠실구장에서 펼쳐지는 2019 KBO 리그 두산-LG전이며, ‘홈팀 두산이 승리한다’, ‘양팀 최종 득점의 합이 10점 이상이다’, ‘양팀 홈런 수의 합이 2개 이상이다’의 총 3가지 O,X 퀴즈를 예측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스포츠토토 공식 페이스북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올 시즌 홈팀 두산은 41승26패로 리그 2위를 기록 중이며, 라이벌 LG는 38승27패로 3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올 시즌 맞대결 성적에서는 두산이 4승2패로 앞서고 있으며, 지난 시즌 역시 15승 1패로 두산이 압도적인 모습을 보였다.

한편 이번 2019 KBO 리그 ‘예측의 신’ 이벤트에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스포츠토토 공식 페이스북에 방문 후, 이번 이벤트 페이지 내에 자신의 예측을 답글로 달면 된다. 또, 주어진 3가지의 O,X 퀴즈를 정확하게 예측한 3명의 스포츠팬들에게는 추첨을 통해 치킨 기프티콘을 증정한다.

토토언더오버 22회차 발매

체육진흥투표권 수탁사업자인 ㈜케이토토(www.ktoto.co.kr)의 인기 배당률 게임 ‘토토언더오버’가 14일(금) 오전 9시30분부터 22회차 발매를 시작한다.

‘토토언더오버’는 승패를 맞히는 방식에서 벗어나 축구와 농구, 야구, 배구 등을 대상으로 5경기 혹은 7경기를 선정해 홈팀과 원정팀 각각의 최종득점이 주어진 기준값과 비교해 낮은지, 혹은 높은지 등 다양한 상황을 예상해 맞히는 배당률 게임이기 때문에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투표 방식의 경우 주어진 각 팀의 최종득점이 기준값 미만이라면 언더(U)에 표기하면 되고, 초과한다면 오버(O)를 선택하면 된다.

이번 22회차의 경우 오는 16일(일)에 열리는 국내프로야구(KBO) 5경기와 국내프로축구 K리그1 2경기를 대상으로 토토팬들을 찾아간다. 자세한 일정을 살펴보면, KBO에서는 두산-LG(1경기)전과 SK-NC(2경기)전, 롯데-KIA(3경기), 삼성-KT(4경기), 그리고 키움-한화(5경기)전이 선정됐고, K리그1에서는 상주상무-제주유나이티드(6경기)전과 FC서울-수원 삼성(7경기)전이 뽑혔다.